

## 기질 및 성격 검사(TCI)를 통한 사상체질 특성 연구

최대성 · 김락형\* · 성원영\* · 한수진 · 신동윤 · 송정모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each Sasang Constitutional Type as assessed by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Dai-Sung Choi, Lak-Hyung Kim\*, Won-Young Sung, Su-Jin Han, Dong-Yoon Shin, Jeong-Mo So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 1. Obj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asang constitutional type using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 2. Methods

A total of 135 healthy subjects (age 19-30)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nsisting of 35 Soyang-type, 66 Taeum-type, 30 Soeum-type, and 4 Taeyang-type subjects. 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pecialist determined each subject's Sasang constitutional type based on the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S-QSCD) and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assessment. The subjects were also asked to complete the TCI.

#### 3. Results

Among the four temperament dimensions, the Soyang- and Taeum-type subje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Soeum-type subjects in Novelty Seeking (NS). The Soeum-type subje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Taeum- and Soyang-type subjects in Harm Avoidance (HA) (Soeum type > Taeum type > Soyang type). The Soyang-type subje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Soeum-type subjects in Reward Dependence (RD). The Soyang- and Taeum-type subje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Soeum-type subjects in Persistence (P).

Among the three character dimensions, the Soyang-type subje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he Taeum- and Soeum-type subjects in Self-Directedness (SD) (Soyang type > Taeum type > Soeum type). The Soyang-typ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Taeum-type in Cooperativeness (C).

#### 4. Conclusions

Differences in temperament and character were discovered across the Sasang constitutional types. The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investigated in larger studies in the future. Similar studies could add to the growing knowledge of Sasang constitutional typology and contribute to a more accurate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Key Word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Sasang Constitution

• 접수일 2011년 07월 29일; 심사일 2011년 08월 01일;  
승인일 2011년 08월 30일  
• 교신저자 : 김락형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Tel : +82-63-220-8617 Fax : +82-63-227-6234  
E-MAIL: kimlak@hanmail.net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09-0075432)  
\* 이 논문은 2011년 2월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임

## I. 緒 論

이제마는 그의 저서들 속에서 사상체질별 생리 병리적인 기전이 다르고, 동시에 심리적인 경향성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사상체질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하는 많은 체질판별 검사지나 척도 등을 개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 심리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대 심리학의 여러 설문 도구를 이용하여 사상체질별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려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MMPI<sup>1,2</sup>, 16PF<sup>3,4</sup>, MBTI<sup>4,11</sup>, BDI<sup>12,13</sup>, STAI<sup>12,14</sup>, NEO-PI-R<sup>15,16</sup> 등을 통한 사상체질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채 등<sup>17,18</sup>은 이전의 연구들에 대한 고찰에서 체질인의 특성에 대해 소양인은 외향성과 낮은 신경증을, 소음인은 내향성과 높은 신경증으로 요약하였다. 최근 이 등<sup>19</sup>, 박 등<sup>20</sup>은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통해 소양인의 높은 자극추구와 낮은 위험회피, 소음인의 낮은 자극추구와 높은 위험회피의 특성을 보고하였다.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는 C.R. Cloninger 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로 한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기질(Temperament)이란 다양한 정서자극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편향 또는 경향으로 유전적 속성을 지니며 문화나 사회적 학습과는 무관하게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성격(Character)이란 한 개인이 가진 기질, 가족환경, 생활경험이 상호작용하여 발달한 것으로,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의 개인차를 말한다. 이 성격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동적인 정서반응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기질차원과 구별된다<sup>21,22</sup>.

TCI는 한 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개인의 발달에 있어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검사 도구라는 점에서 다른 심리검사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TCI는 다른 심리검사보다 사상체질의 특성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상체질도 臟腑大小

나 人趨心慾에 의해 사상체질이 분류된다는 점에서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이 동시에 체질적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등<sup>19</sup>, 박 등<sup>20</sup>은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통해 제시된 소양인의 높은 자극추구와 낮은 위험회피, 소음인의 낮은 자극추구와 높은 위험회피의 특성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TCI를 통한 사상체질인의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의 출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더하여 연구 대상을 달리하고, 체질 진단의 방법이 달라질 때 연구결과가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상체질의 선천적인 면 뿐 아니라 오히려 心慾, 知行과 같은 후천적 부분도 체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인식하는 의학이기 때문에 기질 차원 외에도 성격 차원에서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고를 통해 모집된 19-30세 건강성인을 대상으로 TCI의 기질 및 성격 차원의 각 척도 및 하위척도를 통해 사상체질 간에 차이를 분석 고찰하여 사상체질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대상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만 19-30세의 남녀로, 스스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문진을 통해 특정 질환 및 신체적 심리적 불편 증상을 가지지 않은 자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특정 질환자, 치료 목적의 약물을 복용중인 자, 임부 또는 수유부, 체질 설문 작성을 할 수 없는 자, 체질진단이 불가능한 자였다.

전체 13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135명의 자료를 얻었다. 이중 태양인은 4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의 모집 및 진행은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WSOH IRB 0904-01)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공고를 통해 모집된 모든 참여자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 The Ratio of Participant's Constitution

Sasang Constitutional type	Number of Subjects	Number of Subjects excluding Taeyang-type subjects
Taeyang	4 (2.96)	-
Soyang	35 (25.93)	35 (26.72)
Taeuum	66 (48.89)	66 (50.38)
Soeum	30 (22.22)	30 (22.90)
Total	135 (100)	131 (100)

Values are number(%)

## 2. 사상체질 진단

사상체질 진단은 체질진단설문지인 TS-QSCD<sup>23,24</sup>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우석대학교 사상의학교실)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체질을 확정하였다.

TS-QSCD는 2단계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陽人과 陰人을 구분하고 2단계에서는 다시 陽人은 태양인 소양인, 陰人은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는 방식이다. 신 등<sup>24</sup>에 의해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TS-QSCD를 통한 전체 판별률은 65.0%이고 TS-QSCD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Cronbach의 알파값은 0.815와 0.832로서 TS-QSCD는 체질진단설문지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체질진단은 1인의 사상체질과 전문의가 TS-QSCD 결과를 참고한 후, 직접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 3. TCI 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교수인 C.R.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생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로서 한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병배 등(2007)에 의해 표준화된 성인용 TCI(TCI-RS)를 사용하였다. TCI-RS는 TCI의 개정판인 TCI-R(Cloninger, 1999)의 독일판 단축형 (Goth, Cloninger, & Schmerck, 2003)을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이다<sup>21</sup>.

TCI는 4가지기질차원과 3가지 성격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기질 차원은 NS(Novelty Seeking: 자극추구), HA(Harm Avoidance: 위험회피),

RD(Reward Dependence: 사회적 민감성), P(Persistence: 인내력)이며 성격 차원은 SD(Self-Directedness: 자율성), C(Cooperativeness: 연대감), ST(Self-Transcendence: 자기 초월)이다. 또한 각각의 척도는 3-5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sup>21</sup>.

## 4. 통계처리

피험자의 신장, 체중 및 기질 및 성격검사의 각 척도 점수 및 하위척도의 점수를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체질간의 차이를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사후 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체질간의 성별, 직업 차이에 대해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2.0(SPSS Inc,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P-value < 0.05 및 < 0.01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Ⅲ. 結 果

### 1. 연구대상의 일반특성

연구대상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 참여자 135명 중 태양인으로 체질 진단된 4명을 제외한 131명의 체질별 분포는 태음인 66명(50.38%), 소양인 35명(26.72%), 소음인 30명(22.90%)으로 나타났다 (Table 1). 체질간 나이와 신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과 BMI에서 태음인이 소양인,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질간 성별 및 직업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 2. 기질 및 성격 검사 결과

기질척도 차원에서 NS(Novelty Seeking: 자극추구) 및 P(Persistence: 인내력)는 소양인 및 태음인이 소음인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oyang-type	Taeum-type	Soeum-type	Total	P-value*
Age (years)	22.71±2.83	23.03±2.84	23.53±3.07	23.06±2.89	.522
Height (cm)	165.94±8.04	169.79±8.78	166.80±7.10	168.08±8.36	.055
Weight (kg)	55.33±9.23 <sup>a</sup>	64.63±10.97 <sup>b</sup>	55.59±8.13 <sup>a</sup>	60.07±10.88	< .001
BMI (kg/m <sup>2</sup> )	22.27±2.28 <sup>a</sup>	19.98±2.12 <sup>b</sup>	19.87±1.64 <sup>b</sup>	21.11±2.40	< .001
Gender (M / F)	12 / 23	33 / 33	11 / 19	46 / 89	.235
Job (Student/Worker/Others)	52/10/4	28/5/2	29/2/1	101/17/7	.450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Statistical differences for age, height, weight were determined using One way ANOVA and Duncan's post hoc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Statistical differences for gender and job were determined using  $\chi^2$  test.

Table 3. TCI Results for each Sasang Constitutional Type

		Soyang-type	Taeum-type	Soeum-type	Total
Temperament	NS**	40.74±8.04 <sup>a</sup>	39.30±10.80 <sup>a</sup>	31.67±6.12 <sup>b</sup>	37.94±9.78
	HA**	33.29±11.75 <sup>a</sup>	38.91±10.27 <sup>b</sup>	47.13±10.31 <sup>c</sup>	39.29±11.68
	RD*	50.09±7.72 <sup>a</sup>	46.27±9.42 <sup>ab</sup>	43.63±8.77 <sup>b</sup>	46.69±9.08
	P**	45.97±10.66 <sup>a</sup>	43.44±9.51 <sup>a</sup>	35.87±10.96 <sup>b</sup>	42.38±10.75
Character	SD*	47.94±9.51 <sup>a</sup>	43.35±10.34 <sup>b</sup>	40.13±9.62 <sup>c</sup>	43.84±10.27
	C*	55.20±8.28 <sup>a</sup>	49.71±9.40 <sup>b</sup>	51.40±9.02 <sup>ab</sup>	51.56±9.25
	ST	28.31±11.67	23.29±11.86	23.17±10.90	24.60±11.73

\* NS: Novelty Seeking, HA: Harm Avoidance,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 Cooperativeness,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determined using One way ANOVA(\* P< .05, \*\* P< .01) and Duncan's post hoc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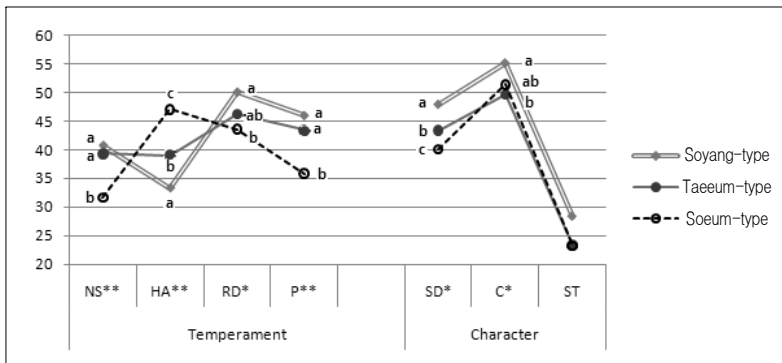


Fig 1. TCI Results for each Sasang Constitutional Type

\* NS: Novelty Seeking, HA: Harm Avoidance,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 Cooperativeness,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determined using One way ANOVA(\* P< .05, \*\* P< .01) and Duncan's post hoc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Harm Avoidance: 위험회피)는 소음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

다. RD(Reward Dependence: 사회적 민감성)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Fig 1).

Table 4. TCI subscale results in Each Sasang Constitutional Type

		Soyang-type	Taeum-type	Soeum-type	Total
NS	NS1**	12.11±3.08 <sup>a</sup>	11.09±3.65 <sup>a</sup>	8.90±2.66 <sup>b</sup>	10.86±3.47
	NS2**	10.54±3.45 <sup>a</sup>	9.53±3.42 <sup>b</sup>	7.13±2.10 <sup>b</sup>	9.25±3.39
	NS3	9.26±4.34	9.39±3.92	7.60±3.17	8.95 ±3.92
	NS4	8.83±3.19	9.29±3.24	8.03±3.38	8.88±3.27
HA	HA1*	8.60±4.22 <sup>a</sup>	10.08±3.98 <sup>ab</sup>	11.67±4.63 <sup>b</sup>	10.05±4.30
	HA2**	9.69±3.39 <sup>a</sup>	10.12 ±2.73 <sup>a</sup>	12.27±2.41 <sup>b</sup>	10.50±3.00
	HA3**	7.14±3.19 <sup>a</sup>	10.27±4.16 <sup>b</sup>	13.03±3.64 <sup>c</sup>	10.07±4.31
	HA4*	7.86±3.59 <sup>a</sup>	8.44±3.09 <sup>a</sup>	10.17±3.94 <sup>b</sup>	8.68±3.51
RD	RD1	12.06±2.91	12.24±2.75	11.27±2.99	11.97±2.85
	RD2**	13.23±2.37 <sup>a</sup>	10.56±3.08 <sup>b</sup>	9.50±3.28 <sup>b</sup>	11.03±3.25
	RD3*	14.06±3.07 <sup>a</sup>	12.91±3.32 <sup>ab</sup>	11.97±3.45 <sup>b</sup>	13.00±3.34
	RD4	10.74±3.11	10.56±2.91	10.90±2.37	10.69±2.84
P	P1**	11.77±3.52 <sup>a</sup>	10.45±2.91 <sup>a</sup>	8.80±3.70 <sup>b</sup>	10.43±3.41
	P2**	11.69±3.22 <sup>a</sup>	10.67±3.04 <sup>a</sup>	9.10±2.70 <sup>b</sup>	10.58±3.13
	P3**	12.54±3.14 <sup>a</sup>	12.06±3.09 <sup>a</sup>	9.23±3.23 <sup>b</sup>	11.54±3.36
	P4	9.97±3.44	10.26±3.04	8.73±3.91	9.83±3.39
SD	SD1	12.66±2.18	11.70±2.80	11.70±2.42	11.98±2.58
	SD2**	12.14±2.89 <sup>a</sup>	10.91±3.08 <sup>a</sup>	9.30±3.47 <sup>b</sup>	10.87±3.26
	SD3	6.63±1.96	5.92±1.86	5.60±2.09	6.04±1.96
	SD4	4.43±1.80	3.89±1.73	3.97±1.30	4.05±1.67
	SD5*	12.09±3.31 <sup>a</sup>	10.86±3.38 <sup>ab</sup>	9.57±3.09 <sup>b</sup>	10.89±3.39
C	C1	12.31±2.79	11.29±3.36	12.13±2.91	11.76±3.13
	C2	9.86±2.37	9.23±2.56	9.33±2.72	9.42±2.54
	C3	9.89±2.10	9.2±2.05	9.07±2.26	9.37±2.12
	C4*	8.40±2.72 <sup>a</sup>	6.83±2.65 <sup>b</sup>	7.53±2.36 <sup>ab</sup>	7.41±2.67
	C5*	14.74±2.58 <sup>a</sup>	13.12±2.87 <sup>b</sup>	13.33±2.68 <sup>b</sup>	13.60±2.82
ST	ST1	10.66±3.93	10.12±3.84	9.03±3.79	10.02±3.87
	ST2	7.74±4.53	5.85±.38	5.90±3.66	6.37±4.32
	ST3	9.91±6.03	7.32±5.38	8.23±5.96	8.22±5.75

NS: Novelty Seeking, HA: Harm Avoidance, RD: Rerwo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 Cooperativeness,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determined using One way ANOVA (  $P < .05$ , \*\*  $P < .01$ ) and Duncan's post hoc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성격척도 차원에서 SD(Self-Directedness: 자율성)는 소양인이 가장 높았으며,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C(Cooperativeness: 연대감)는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T(Self-Transcendence: 자기 초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Fig 1).

3. 기질차원 하위 척도 검사 결과

기질차원 하위척도에서 NS1, NS2는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1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3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각 체질간

의 유의성이 있게 나타났다. HA2, HA4는 소음인이 소양인과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RD2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RD3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1, P2, P3는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4).

4. 성격 차원 하위 척도 검사 결과

성격차원 하위척도에서, SD2는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D5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4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C5

는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Table 4).

#### IV. 考 察

기질 및 성격검사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교수인 C.R.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생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로서 한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이러한 TCI는 정상인과 심리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고 속성이 안정적이 밝혀졌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구조와 안정성이 반복 검증되었다<sup>21</sup>.

국내에서는 오현숙과 민병배(2004)에 의해 TCI의 청소년용인 JTCI(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chmerck, Meyenburg & Poustka, 1995)가 표준화되었으며, 민병배 등(2007)에 의해 성인용 TCI(TCI-RS)가 표준화되었다. TCI-RS는 TCI의 개정판인 TCI-R(Cloninger, 1999)의 독일판 단축형(Goth, Cloninger, & Schmerck, 2003)을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이다<sup>21</sup>.

이러한 TCI가 한국판으로 출판된 이후 여러 연구나 임상에서 인간의 기질 및 성격을 분석이 용이해졌고 이를 기존의 심리기법들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양<sup>25</sup>의 연구에서는 TCI와 MMPI(다면적 인성검사)의 관계에 대하여 밝혔고, 이 등<sup>26</sup>은 TCI와 우울, 불안을 연구하였다.

박 등<sup>20</sup>은 기존에 수집된 전문의에 의한 약물 처방과 반응을 중심으로 체질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에 우편 조사를 통해 20-69세 대상자 98명의 TCI 결과 수집 분석한 연구에서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NS 척도가 높으며,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HA 척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등<sup>19</sup>은 한의예과 재학생에게 1년 간격으로 반복 측정한 사상체질분류검사지 II(QSCC II)에서 일정한 결과를 보인 66명에 대한 분석에서 NS와 HA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NS 척도에서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사상체질인의 차이가 선천적인 면과 더불어 心慾, 知行과 같은 후천적 부분도 체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점에서 기질 측면 외에 성

격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를 보이지 않음지, 또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연구대상이 달라질 때 어떤 결과를 보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고를 통해 모집한 19-30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TS-QSCD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우석대학교) 결과를 참고로 한 사상체질전문의의 직접 면담을 통한 진단을 통해 체질진단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이전의 연구에 비하여 30세 이하의 젊은 성인 연령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체질 진단의 절차를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 135명에 대해 체질진단과 함께 기질 및 성격 검사 TCI-RS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Short Version)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 먼저 기질 척도 중 NS(Novelty Seeking/자극추구)에서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NS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에 대한 탐색과 처벌을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up>21</sup>. HA(Harm Avoidance/위험회피)에서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의 순서로 유의성찬 차이를 나타내었다. HA는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up>21</sup>. RD(Reward Dependence/사회적 민감성)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은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친밀감 혹은 애착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위해 행동을 유지하는 성향을 말한다. 즉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을 말하며 행동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up>21</sup>. P(Persistence/인내력)에서는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는 간헐적인 강화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취라는 보상을 위해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말한다<sup>21</sup>.

한편 성격 척도에서의 결과를 보면, SD(Self Directedness/자율성)에서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순서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SD는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자율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한다<sup>21</sup>. C(Cooperativeness/연대감)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 사회, 인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을 이해하고 동일 시하는 정도를 말한다<sup>21</sup>. 마지막 척도인 ST(Self Transcendence)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박 등<sup>20</sup>은 기질 특성이 체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성격 특성은 오랜 시간동안에 걸쳐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상체질간의 성격차이는 유의성이 없을 것으로 고찰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TCI와 체질에 대한 이전의 이 등<sup>19</sup>이나 박 등<sup>20</sup>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기질 척도 뿐 아니라 성격 척도에서도 체질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상의학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선천적인 면 뿐 아니라 오히려 心慾, 知行과 같은 후천적 부분도 체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인식하는 의학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천적 속성의 기질 뿐 아니라 후천적 속성의 성격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여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 및 성격 척도와 더불어 각각의 하위 척도의 분석을 통해 각 체질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질척도의 NS(Novelty Seeking: 자극추구)척도의 하위 척도를 분석해보면 NS1(탐색적 흥분 / 관습적 안정), NS2(충동성 / 심사숙고)에서 소양인군과 태음인군이 소음인 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NS3(무질제 / 질제)과 NS4(자유분방 / 질서정연)에서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양인과 태음인이 탐색적 흥분이나 충동성에서 소음인에 비해 높으며, 소음인이 소양인과 태음인에 비해 관습적 안정성, 심사숙고 부분이 높다고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음인군이 소양인군과 비슷한 성향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20~30대 연령층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연구를 통해 소양인군과 태음인군 사이에서 구별되는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HA(Harm Avoidance: 위험회피)척도의 하위 척도에서는 HA1(예기불안 / 낙천성)에서 소음인군이 소양인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왔으며 HA3(낮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각 체질간의 유의성이 있게 나타났다. HA2(불확실성에 대

한 두려움) 및 HA4(쉽게 지침 / 활기 넘침)에서 소음인군이 소양인군과 태음인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인은 위험회피 척도 및 모든 하위 척도에서 다른 체질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소음인은 HA의 하위 척도인 예기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낮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쉽게 지침 등의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RD(Reward Dependence: 사회적 민감성)척도의 하위 척도에서는 RD2(정서적 개방성)에서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RD3(친밀감 / 거리 두기)에서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RD1(정서적 감수성)과 RD4(의존 / 독립)에서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Persistence: 인내력)척도의 경우 P1(근면), P2(끈기), P3(성취에 대한 야망)에서 소양인군과 태음인군이 소음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4(완벽주의)에서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소양인군과 태음인군이 소음인군에 비해 근면, 끈기, 성취에 대한 야망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양인이 마무리에 약하다고 알려진 통념과 다른 결과이다. TCI의 P의 인내력(persistence)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구력과는 다르며 일을 꾸물거리지 않고 빨리 해결하려는 성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려는 경향, 야망을 가지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소양인의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의 RD 척도나 P 척도는 지속적인 강화가 없어도 친밀감이라는 사회적 보상이나 성취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기에 NS나 HA 보다 좀 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질이지만 이 역시 선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척도이다. 이러한 기질모델이 인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개인의 성격장애 여부 및 정도를 기술하는 것은 어렵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척도가 SD, C, ST 척도이다. 이 척도들은 성격 차원들이며 후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척도들이다. 즉 같은 기질 유형의 사람들이라도 자율성, 연대감 척도 등의 개발 여부에 따라 정제되지 않은 타고난 본성에 따른 성격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Table 5. TCI Results in 4 Taeyang-type Subjects

Scale	Lee○○○	Lee○○○	Song○○○	Seo○○○
NS	58	56	73	79
HA	33	12	16	34
RD	52	29	89	61
P	67	69	43	73
SD	74	59	76	28
C	45	36	45	90
ST	42	64	38	52

\* NS: Novelty Seeking, HA: Harm Avoidance, RD: Rwo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SD(Self-Directedness: 자율성)척도의 하위척도를 보면 SD2(목적의식 / 목표결핍)에서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SD5(자기일치)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SD1(책임감 / 책임전가), SD3(유능감 / 무능감), SD4(자기수용 / 자기불만)에서는 구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태음인군과 소양인군이 소음인군에 비해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소양인군이 소음인군에 비해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C(Cooperativeness: 연대감)의 하위척도에서는 C4(관대함/복수심)척도에서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C5(공평/편파)척도에서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C1(타인수용 / 사회적 비우호), C2(공감 / 둔감), C3(이타성 / 이기성)에서는 구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관대하고 동정심이 많고 태음인은 소양인에 비해 복수하려는 성격이 많으며,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에 비해 공평과 정직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TCI 분석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분석은 태양인을 제외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군에 대한 결과였다. 다른 체질연구에서도 겪게 되는 한계점으로, 태양인군은 늘 적은 개체수로 인하여 정상적인 통계방법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기 힘들다. 따라서 4명의 태양인군의 TCI 결과를 참고적으로 살펴보았다(Table 5).

태양인 군의 TCI의 결과를 살펴보면 NS는 T점수가 50이상이고 HA는 50이하의 성향을 보여, 본 연구 분

석결과의 일반적인 소양인군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척도에서는 공통적인 면을 찾을 수 없었다. NS척도와 HA척도는 소양인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으며 다른 척도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확대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사상체질인의 기질 및 성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교하여 높은 자극추구와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을 보이며, 낮은 위험회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기질차원에서 소양인과 소음인은 전반적으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태음인은 소양인처럼 소음인보다 높은 자극추구와 인내력을 보이지만, 위험회피에서는 소양인보다 낮고 소음인보다 높다. 성격차원에서 자율성은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이며, 연대감은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 본 연구에서 이전의 연구에서 사상인간의 기질 척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성격척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달리 기질 척도와 함께 성격 척도에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TCI를 통하여 사상 체질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 19-30세의 건강한 성인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연령층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질 척도 외에 성격 척도에서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가 실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이가 환자집단과 건강인, 또는 대학생과 일반 인구집단과 같은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체질군간의 대상자수, 체중의 차이와 같은 다른 요소를



고려한 연구설계와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TCI는 기질 차원과 성격 차원의 여러 척도는 사상체질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체질간의 기질 및 성격 척도에서의 차이 하위 척도에서의 차이를 기초로 확대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체질인의 특성 연구, 체질의 진단이나 기타 심리 연구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結 論

19~30세의 건강한 피험자 135명을 대상으로 TS-QSCD 결과를 참고한 사상체질 전문의의 판정을 통해 태양인을 제외한 1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TCI를 통해 기질특성과 성격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질차원에서, NS 및 P는 소양인과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는 소음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RD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성격차원 척도에서, 자율성 SD 는 소양인이 가장 높았으며,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세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연대감 C는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기질차원의 하위척도 검사 결과 NS1, NS2 및 P1, P2, P3는 소양인과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1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3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각 체질간의 유의성이 있게 나타났다. HA2, HA4 는 소음인이 소양인과 태음인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 RD2의 경우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높았다. RD3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성격차원의 하위척도 검사 결과 SD2는 소양인과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D5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4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 있게

높게 나왔으며 C5는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TCI는 사상체질의 특성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검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체질간의 성격 특성의 연구, 체질의 진단이나 기타 심리 연구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I. 參 考 文 獻

1. Kim JW, Kim JH, Hwang UW. Clinical study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lcoholic patients-with MMPI & Sasang constitution. J Orient Neuropsychiatry 1992;3:65-85. (Korean)
2. Kim JH, Yang HS, Guk YJ, Lo IS, Lee SG, Jang HH, et al. Study for correlation between MMPI results and Sasang constitutions in out-patients of Oriental Neuropsychiatry. J Orient Neuropsychiatry 2004;15:175-85. (Korean)
3. Ko BH. The study of analysis with sixteen personality factor in Sasang constitution. KOMS 1993;14:64-76. (Korean)
4. Cho YT, Ko BH, Song IB. Study on Sasang type classification: comparison of 16PF and MBTI. J Const Med 1994;6:21-39. (Korean)
5. Cho YT, Ko BH, Song IB. Study on Sasang type classification: comparison of 16PF and MBTI. J Const Med 1994;6:21-39. (Korean)
6. Chae H, Lyoo IK, Lee SJ, Cho S, Bae H, Hong M, et al. An alternative way to individualized medicine: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its of Sasang typology. J Altern Complement Med 2003;9:519-28.
7. Park HG, Lee JH.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s and C.G.Jung's psychological types. J Const Med 1998;10:41-50. (Korean)
8. Choi S, Chi S, Jung B, Ahn K, Koh B, Sung H.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and Myers-Briggs Type Indicator. Korean J Orient Med 2000;6:47-57. (Korean)

9. Song JH, Park KS, Shim SM, Chang MK, Kim GW, Koo BS.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and QSCCII composed to nature & emotion. *J Orient Neuropsychiatry* 2002;13:21-39. (Korean)
10. Lee JH, Chae H, Park SJ, Kwon YK. Analysis on Character and Temperament of Sasang types with repeated QSCCII tested subjects. *Korean J Orient Med Physiol Pathol* 2007;21:1319-31. (Korean)
11. Choi SM, Hong JM, Chi SE, Kim JD, Yoon YS, Ahn KS.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childhood obesity, Sasang constitutions and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Korean J Orient Med Physiol Pathol* 2001;15:1034-8. (Korean)
12. Seo W, Kim LH, Kwon BH, Song JM.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 by using BDI and STAI. *J Sasang Const Med* 2000; 12:136-43. (Korean)
13. Lim J, Lee IS, Koh BH, Song IB, Lee SK.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obese middle-aged women. *J Sasang Const Med* 2004;16: 59-69. (Korean)
14. Hsing LC, Yang CS, Lee TH, Kim LH, Kwak MJ, Seo ES, et al. Short-term effect of Mahuang on state-trait anxiety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A 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Korean J Orient Intern Med* 2007;28:106-14. (Korean)
15. Park HI, Lee KI.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QSCCII & NEO-PI-R. *J Const Med* 2000;12:104-22. (Korean)
16. Cho CH, Cho YS, Lee SK.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o-yang, So-eum and Tae-eum using NEO-PI-R. *Korean J Orient Med Physiol Pathol* 2005;19:1491-5. (Korean)
17. Chae H, Park SH, Lee SJ, Koh KC. Sasang typology from a personality perspective. *J Korean Orient Med* 2004;25:151-64. (Korean)
18. Chae H, Park SH, Lee SJ, Kim MG, Danny W, Kwon YK. Psychological Profile of Sasang Typology: A Systematic Review. *eCAM* 2009;6(S1)21-29 doi:10.1093/ecam/nep079.
19. Lee JH, Chae H, Park SJ, Kwon YK. Analysis on Character and Temperament of Sasang types with repeated QSCCII tested subjects. *Korean J Orient Med Physiol Pathol* 2007;21:1319-31. (Korean)
20. Park SH, Kim MG, Lee SJ, Kim JY, Chae H.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typology in an adult clinical sample. *eCAM Advance Access published April 20, 2009* doi:10.1093/ecam/nep034.
21. Min BB, Oh HS, Lee JY.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Family Manual. Seoul: Maeumsarang, 2007.
22. Cloninger CR, Svrakic DM, Przybeck TR.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 Gensychiatry* 1993;50:975-990.
23. Kim YW, Shin DY, Kim JH, Choi DS, Lim MK, Lee KL, Song JM. A Development of the Two Step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S-QSCD).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1):75-90. (Korean)
24. Shin DY, Song JM.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S-QSCD.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99-126. (Korean)
25. Yang GH. A Study about the Relation of TCI and MMPI.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008;18(21):15-29. (Korean)
26. Lee SH, Hwang ST. Construct Validity of the TCI-R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Short Version): Comparing Temperament and Character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Korean Under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9;28(2):533-548. (Korean)